

# 이 력 서



이름	강 혁 준	지원부문	웹디자인 (신입)
생년월일	1991년 06월 17일	병역	필_육군(작전병: 2011.09~2013.06)
이메일	kaku7471@gmail.com	핸드폰	010-6820-9935
주소	(우46611)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276번길 60 백양산동문굿모닝힐(107동 2203호)		
포트폴리오 주소			

## 학력사항

재학기간	학력사항	전공	졸업구분
2010.03 ~ 2016.02	제주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졸업
2007.03 ~ 2010.02	제주중앙고등학교	-	졸업

## 교육이수

기간	교육명	교육기관명
2021.04.26. ~ 2021.10.01 (5개월)	반응형 웹 퍼블리싱 & 웹디자인 3차	(재)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
	주요내용 : Adobe Photoshop/Illustrator/INDESIGN, HTML/CSS, jQuery	

## 사회활동/아르바이트

기간	기관명	담당업무	퇴사사유
2014.07 ~ 2014.12	제주대학교LINC사업단	캡스톤디자인 대회참가, 장비설계 및 실험설계	프로젝트 완료

## 활동사항(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공모전, 수상경력 외)

기간	구분	기관명(활동명)	활동 내용 및 담당 업무
2015.03.25. ~ 2015.03.26	공모전	제주대학교LINC사업단	창의성업그레이드 캠프, 발표아이템 세부구축 및 대본작성

## 자격증/어학점수

자격증(점수)	발행처	취득일
웹디자인기능사 (필기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	

## 어학능력/OA 소프트웨어

선택	주요내용		
영어	회화: 하	작문 : 하	독해 : 중
문서작성	Excel, PowerPoint, MS Word 가능		

# 보유기술 및 능력

범 위	종 류	숙련도	가능 범위
웹디자인	Adobe Photoshop CS6	중	홈페이지 시안 제작, 사진보정, 이미지편집, 포스터, 템플릿, 아이콘 제작
	Adobe Illustrator CS6	중	
	INDESIGN	하	템플릿 제작
	HTML/CSS	중상	웹 표준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jQuery	하	HTML/CSS를 활용한 효과부여
	Naver blog(네이버 블로그)	하	홈페이지형 블로그 제작
문서작업	Microsoft Office Word/한글	중	문서 작성 및 편집
	Microsoft Office PowerPoint	중	기본적 기능 및 기획서 작성
	Microsoft Office Excel	중	차트기입 및 기본적 함수 사용

# 자 기 소 개 서

<p><b>성장 과정</b></p>	<p>과거부터 저는 웹사이트를 보며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그저 지나칠 때도 많았지만 시선에 확 꽂히는 기능이나 디자인을 볼 때면 원래 하려던 행동을 멈추고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디자인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눈여겨보곤 했습니다. 웹디자인에 연이 닿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학과가 공과계열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동안 전혀 배우지 않았던 수학과 물리학을 배우고 응용해야한다는 현실에 막막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군대에 갈까 생각도 했지만 과거 웹사이트의 이해를 포기했던 것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친구들과 선배들에게 물어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이후 웹디자인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디자인과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역학-공학 전공을 하며 CAD설계의 디자인과 모바일 앱 설계 및 코딩을 하며 어플의 디자인, 캡스톤 대회에 부 팀장으로 참여하며 ROV의 외부설계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디자인들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비교육을 통해 웹사이트 시안 제작부터 구현까지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 제가 궁금하고 관심 있어 하던 웹사이트의 제작원리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냥 쉽고 수월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이 분야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흥미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b>성격</b></p>	<p>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목적의 공동체에 속해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은 점은 공동체 사람들과의 빠른 정서적 교류가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실력과 재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공동체원들과의 관계가 좋고 지향하는 목표를 그들과 공유하며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의욕과 열정이 있다면 실력과 재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몫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 작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돌입에 앞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차후 활동사항에 소개할 대학시절 캡스톤 디자인 대회와 창의성 업그레드 캠프를 경험했을 때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도치 않게 준비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했던 준비 작업이지만 그로인해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본격적인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훨씬 안정적이고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빠른 정서적 교류와 충분한 사전작업이 어떠한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서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선적으로 친목과 사전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p>
<p><b>사회 생활 (활동 사항)</b></p>	<p>저는 군복학 후 2014년 2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대회에 나갔습니다. 제주도내에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아이템하나를 정해서 기획부터 제작까지 수행하는 대회였는데 1년 선배와 후배 두 명, 총 4명이 한 팀이 되었고 저는 부팀장과 구조설계, 실험설계 등의 역할을 맡아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아이템 선정에 앞서 팀이 꾸러지자마자 개인적으로 아이템 구상에 임했고 당시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며 해난 구조용 ROV(원격조종 수중 탐사로봇)을 아이템으로 정했습니다. 팀원들의 중간 위치에서 서로를 잘 조율하며 여러 우여곡절과 설계과정, 실험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좀 힘들더라도 이번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자는 생각으로 대학원 실험실까지 빌려 쓰며 데이터를 쌓는데 주력했습니다. 인고의 시간이 흘러 대회 발표 전날 겨우겨우 세팅을 마무리하고 부스에 수조를 옮긴 후 저와 후배들을 시연을 담당하고 팀장선배는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의 대상발표에 저의 팀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가장 기뻐던 것은 상금이나 대상으로 인해 받은 A+학점이 아닌 오랜 시간 고민하고 노력하며 흘린 땀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가장 기뻐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러한 경험을 살려 15년 1학기에 창업캠프에 다시 부팀장으로 참여하여 밤을 새는 노력을 한 끝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p>
<p><b>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b></p>	<p>미국의 문학비평가이자 시인이었던 조지 우드버리(George Edward Woodberr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배는 최악의 실패가 아니다.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다.” 어쩌면 지금의 구직과정에서 이력서 넣는 과정조차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간 웹디자인 수업을 들으며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점차 역량이 쌓여 전문가가 되어가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분명 그 과정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겠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을 것이란 확신이 생겼기에 설렘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에 친해지기 쉬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만 먼저 다가가며 공동체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웹디자인 실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채워야할 부분도 많겠지만 점차 전문가로써 퍼즐을 맞춰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며 모르는 부분을 최대한 빨리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 회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원으로 발전해나가겠습니다.</p>